

『東醫寶鑑』 翻譯書에 대한 異見*

-湯液篇과 草部를 中心으로-

大邱韓醫大學校 韓方産業大學 韓藥材藥理學科² ·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金容漢² · 金永浩² · 金恩瑕¹ **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Dong-uibogam 『東醫寶鑑』 in Korean version with a different view.

-Focused on Tang-aekpyeon(湯液篇) and Chobu(草部) in
Dong-uibogam 『東醫寶鑑』-

Kim Yong-han² · Kim Young-ho² · Kim Eun-Ha¹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Dept. of Herbal Medicinal Pharmacology, College of Department of Herbal
pharmaceutical Engineering, Daegu Haany University

The 『Dong-uibogam(東醫寶鑑)』 is a Korean medical book which represents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compiled by the royal physician, Heo Jun. It was plac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in the year of 2009. It has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Korean 7 times so far, and most of them depended on the liberal translation.

This study has a purpose to investigate the Korean version in the view of Chinese writing grammar, and the results can be concluded as follows ;

1. The Korean version shows insufficient translation of individual morpheme in the sentence which has the prepositions with the pronouns or the conjunctions.
2. Most of the versions failed to translate the syntax properties of the demonstrative pronoun; '之' and '其'.
3. Some of the versions are not successful i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ent of sentence correctly.
4. Many of the adverbial phrases are not translated, which is the constituent of modifier in the sentence.
5. Some sentences are mistranslated by the paragraphs.
6. Some of them faile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s of the vocabularies.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preposition, pronoun, conjunction, morpheme, demonstrative pronoun

I. 序論

許浚이 저술한 『東醫寶鑑』은 宣祖 25년 왕명으로 光海君 2년 內醫院에서 訓練都監字로 간행되었는데, 2009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 동안 한의서에 대한 번역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번역된 醫書 중의 하나가 『東醫寶鑑』으로 기존의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¹⁾

- ① 1964년 동양종합통신대학 출판부, 『詳譯 東醫寶鑑』²⁾
- ② 1966년 南山堂, 『國譯增補 東醫寶鑑』³⁾
- ③ 1977년 大衆書館, 『한글完譯本 東醫寶鑑』⁴⁾
- ④ 2003년 푸른사상, 『완역 東醫寶鑑』
- ⑤ 2005년 여강, 『三次 改訂版 原文對譯 東醫寶鑑』⁵⁾
- ⑥ 2005년 법인문화사, 『新編對譯 東醫寶鑑』⁶⁾
- ⑦ 2005년 동의보감출판사,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⁷⁾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ehkim@dhu.ac.kr Tel: 053-770-2240.

접수일(2009년 12월 20일), 수정일(2010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2일)

- 1) 孟雄在. 동의보감 한문(寒門) 번역본의 잘못된 점에 대한 고찰(1). 한국전통의학지. 2000. 10(1). p.71. 이 논문에서는 1962년 許珉 번역 국제출판사 詳譯 東醫寶鑑, 1966년 남산당 國譯增補 東醫寶鑑, 1994년 동의학연구소 번역 여강출판사 출판 東醫寶鑑, 1997년 대중서관출판 한글완역 동의보감, 1999년 법인문화사출판 對譯東醫寶鑑 5종을 소개하였다.
- 2) 許珉 번역 1962년 국제출판사, 『詳譯 東醫寶鑑』은 필자는 구하지 못하였고, 동일인의 번역인 이 책을 볼 수 있었다.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 3) 이 책의 발행처는 서울 소재 豊年社이고, 발행인은 洪鍾夏로 1966년 7월20일 인쇄하여 1966년 8월 1일에 발간하였고, 또 서울 소재 南山堂에서도 발행인 李周星이 1966년 8월 1일 초판 발행하고 1969년 8월 25일 增補版이 발행되었다.
- 4) 이 책은 2008년 한글완역본으로 만든 사전식 동의보감이란 書名으로 한국사전연구사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 5) 이 책은 1994년에 東醫學研究所에서 출판한 것으로 三次改訂版을 출판하였다.
- 6) 이 책은 1999년 출판한 對譯 東醫寶鑑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 7) 이 외에 번역서가 더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더 찾아 내지

기존의 번역서는 意譯한 부분이 많은 것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기존의 번역서가 잘못되었고 필자의 번역이 옳다는 의도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단지 보다 문법적인 구조(統辭構造)에 맞는 문장 해석과 介詞·語助辭·代名詞·慣用的인 語彙의 용법 등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원저자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것 이외는 다른 의도가 없다.

개개 한자어를 번역하면서 국어 어휘의 선택은 역자의 주관적 선택이므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몇몇 번역서는 개개 형태소(形態素)의 문법적 특성이 분명하여 의미가 명확한 것을 번역하지 않아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번역되거나, 문장의 성분을 잘못 이해하여 성분이 바뀐 경우, 부사 혹은 부사어를 해석하지 않은 문장, 허사(虛辭)의 관용적인 표현, 대명사 등을 다소 간과(看過)한 점이 보인다.

필자는 번역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번역이 가능한 한문의 개개 품사는 문장의 부속 성분일지라도 번역을 하는 것이 저자의 내재된 의도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원서의 독해를 시도하는 초학자들은 번역서의 번역문을 보고 자신의 독해 오류를 수정하는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문법적인 바탕 위에서 분명하게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은 학습(學習)하는 이로 하여금 문장 독해 능력 신장에 혼돈을 초래하게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가능한 직역(直譯)을 하였고 기존 번역서에 대해 몇 가지 異見을 제시하고자 한다.⁸⁾

1. 研究方法

본고는 『東醫寶鑑』·「湯液篇」卷之一의 湯液序例와 卷之三의 草部上과 卷之三의 草部下에 수록된 원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기존의 번역서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그 타당

못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논문에서는 譯者나 監修者의 이름을 밝혀야 하나 본고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8) 본고에 제시된 것은 논문의 紙面 制約이 있으므로 연구 영역 내에서 모두 찾아낸 것은 아니다.

성은 기존의 한문 문법학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제시한다. 논지의 전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번역문 모두를 수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번역문을 제시한다. 번역문의 인용 표시에서 출판사는 서론에서 제시한 번호로 대신하고 쪽수는 'p'로 표시하였다. 비교 고찰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前置詞(介詞)의 用法
2. 指示代名詞 '之'·'其'의 翻譯
3. 文章 成分의 翻譯
4. 修飾 成分의 翻譯
5. 文章의 段落을 잘못 나눈 경우
6. 語彙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II. 本論

1. 前置詞(介詞)의 用法

1) '謂之'가 연결된 문장

원인전치사 '謂'+삼인칭대명사 '之'가 결합된 문장, 즉 "……謂之……"의 상용적인 문장에서 '之'는 삼인칭대명사 '그것으로' 번역되고, '謂'는 原因介詞로 '…… 때문에'로 번역한다. 이 '謂之(그것 때문에)'⁹⁾는 관용적(慣用的)으로 쓰이는 것으로 본고의 연구 범위(湯液序例, 草部 上下)내에서도 사용된 경우가 더 있다.¹⁰⁾

【景天】 今人以盆盛 植屋上以辟火 故謂之慎花草

① 지금 사람들이 盆에 심어서 屋上에 두니 이것은 火災를 물리친다는 것으로 "慎花草"라고도 한다.(P.271)

② 지금 사람들이 盆에 심어서 屋上에 두어 火를 물리친다는 것으로 慎花草라고도 한다.(P.1189)

③ 지금 사람들이 화분에 길러서 지붕위에 두어 화(火)를 몰아낸다고 해서 신화초(慎花草)라고도 한다.(P.1414)

④ 오늘날 사람은 동이[盆]에 담아서 심어 옥상(屋上)에 두고 불을 물리치는 고로 진화초(鎭花草)라 한다.(p.306)

⑤ 지금 사람들은 화분에 심어 지붕에 올려놓으면 불이 붙지 않게 한다고 하여 신화초(慎花草)라고도 한다.(P.2983)

⑥ 지금 사람들은 화분에 심어 지붕에 올려놓음으로써 불나는 것을 막는다고 하여 신화초(慎花草)라고도 한다.(P.3517)

⑦ 요즘 사람들이 이것을 화분에 심어 지붕에 올려놓아 화재를 예방하기 때문에 신화초(慎花草)라고도 한다.(p.2165)

지금의 사람들은 화분에 심어 옥상에 두면 화재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화초(慎花草)이다(라 한다.)

대부분의 번역서가 의역(意譯)을 하였으나 저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였다. 그러나 '謂之'의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기존의 번역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느냐 문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문제로 남는다. 필자는 번역의 발전적인 모색을 위해서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者謂'가 연결된 문장

불완전명사(者)+원인 전치사(謂)가 연결된 문장, 즉 "……者謂……"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것 역시 본고의 연구 범위 내에서도 쓰인 경우가 더 있다.¹¹⁾ 者는 '……것'으로 번역하고, '謂'는 '……

9) 金元中 編者.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377. 이에 대한 예문으로 "有一人不得其所, 則謂之不樂(鹽鐵論 憂邊) 어떤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위치를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다.)

10) 【石斛】 形如蚌蜺脾者 爲佳 世謂之金鈿石斛(형태가 메뚜기 넓적다리와 같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긴다. 세인들이 그것 때문에 금차석고라 한다.)

【芎藭】 惟貴形塊重實作雀腦狀者 謂之雀腦芎(형태는 덩어리 모양으로 무거우면서 실하여 참새의 뇌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오직 귀하게 여긴다. 그것 때문에 작뇌궁이라 한다.)

11) 【湯散丸法】 一撮者四刀圭也 十撮爲一勺 十勺爲一合 以藥升分之者謂藥有虛實輕重 不得用斤兩則以升平之(약을 되로 구분하는 것은 약은 허실 경중이 있어 근으로 해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12)로 번역한다.

【採藥法】凡採藥時月 多以二月八月採者謂春初津潤始萌 未充枝葉 勢力淳濃故也 至秋枝葉乾枯津潤歸流於下

① 採藥의 時期를 대개 二月과 八月을 말하는이가 많은데 그것은 첫봄의 津液이 불어서 처음 萌動하고 枝葉에까지는 올라가지 아니하니 뿌리의 勞力이 淳濃한때문이요 가을에 이르러서는 枝葉이 乾枯하고 津液이 아래로 돌아가는 때문이니(p.175)

② 採藥의 時期를 대개 二月과 八月을 말하는 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첫봄의 津液이 불어서 처음 萌動하고 枝葉에까지는 올라가지 아니하니 뿌리의 勞力이 淳濃한 때문이요, 가을에 이르러서는 枝葉이 乾枯하고 津液이 아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p.1084)

③ 약을 채취하는 시기를 대부분 2월과 8월을 말하는 이가 많은데 그 까닭은 초봄의 津液(津液)이 불어서 처음 싹이 트고 가지와 잎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뿌리의 세력(勢力)이 매우 순하기 때문이고, 가을이 되면서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津液(津液)이 아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니(p.1306)

④ 대체로 채약(採藥)의 시기를 흔히 2월과 8월에 하는데, 이는 초봄에는 津液(津)이 윤기(潤)가 나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始萌) 가지와 잎에는 덜 차나[未充] 세력이 맑고 진하기(淳濃)때문인 것이다. 가을에 이르러서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津液의 윤기가 아래로 돌아와 흐르니.(p.35)

⑤ 약을 캐는 시기는 대체로 음력 2월과 8월이다. 이때에 채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른 봄에는 뿌리에 있는 津液이 싹터 오르려고는 하나 아직 가지와 잎으로 퍼지지 않았고, 식물의 자라나려는 힘은 무성하기 때문이다.(p.2709)

⑥ 무릇 약재를 채취하는 시기를 흔히 음력 2월과 8월로 잡는 것은, 이른 봄에는 물이 올라 싹트기 시작하나 아직 가지와 잎으로는 퍼지지 않아서 뿌리에 있는 약기운이 진하기 때문이고, 가을에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津液(津液)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한다.(p.3275)

⑦ 약을 채취하는 시기는 대부분 2월이나 8월이다. 초봄에는 津液이 들기 시작하였으나 가지와 잎은 채우지 않아 약 기운이 아주 진하고, 가을에는 가지와 잎이 마르면서 津液이 뿌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p.1965)

대개 약재를 채취하는 시기가 2월과 8월에 채취가 많은 것은 봄에는 처음으로 津液이 윤기를 띄어 비로소 싹이 트나 아직은 가지와 잎에 (津液)채워지지 않아(뿌리의) 세력이 농후하기 때문이고, 가을이 되어서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시들어 津液의 물기가 아래로 흘러내려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介詞 ‘以’는 시간을 나타내는 年·月 앞에 배합되어 ‘…에’13)로 해석 된다.

불완전명사 ‘者’는 형용사·동사·동명구·명사 등의 뒤에 배합되어 명사구를 이루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칭하여 ‘……하는 사람’·‘……것’ 등의 의미를 지닌다. 위의 번역서 중 ‘말하는 이가 많은데’로 번역한 것은 ‘者’를 사람으로 번역한 오류이다. ⑥은 ‘者’의 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원문의 주어는 ……者, 서술어는 謂, 목적어는 謂 以下の 문구이다.

‘津潤’의 字典的 의미는 ‘滋潤14)’으로 ‘촉촉해짐·습기를 띠15)’이다. ‘津’은 ‘풀나무 등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물질’이고, ‘潤’은 ‘물기’를 말한다.

3) 전치사 ‘以’와 접속사 ‘則’이 배합된

릴 수 없으니 되로서 그것을 평균해서 헤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相反藥】相反爲害甚於相惡者謂彼雖惡我我無忿心(상반이 해가되는 것이 상오 보다가 심한 것은 저들은 비록 나를 미워하나 나는 분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2) 金元中 編著.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378.

13)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2001. 계명대학교 출판부. p.231. 이러한 용법은 우리 조상들의 문집에서도 상용되었다.

1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卷五).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 p.1444. “滋潤也.”

15) 東亞百年玉篇. 서울. 두산동아. 2006. p.971.

문장

【七方】治主以緩，緩則治其本. 治客以急，急則治其表.

① **主를 다스리는것은 緩方을 取하나니 緩方은 그 根本을 다스리는 것이요 客을 다스리는 것은 急方을 取하나니 急方은 그 外標를 다스리는 것이다.**(p.179)

② **主를 다스리는 것은 緩方을 取하는데 緩方은 그 根本을 다스리고, 客을 다스리는 것은 急方을 取하는데 急方은 그 外標를 다스리는 것이다.**(p.1088)

③ **주(主)를 치료하는 것은 느린 처방을 택하는데 느린 처방은 그 근본을 치료하고 객(客)을 치료하는 것은 급방(急方)을 택하는 데 급한 처방은 그 길을 치료하는 것이다.**(p.1310)

④ **치료함에 완화하는 것[緩]으로 위주(主)로 하니 완방(緩方)은 그 근본[本]을 치료하고 객(客)은 급(急)함으로써 치료하니 급방(急方) 그 끝[標]을 치료한다.**(p.44)

⑤ **주병을 치료하는 데는 완방을 쓰는데,** 완방이란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다. 밖으로부터 침범한 병을 치료할 때에는 급방을 쓰는데, 급방이란 표증(表證)을 치료하는 약이다.(p.2718)

⑥ **주병(主病)을 다스리려면 완방을 쓰는데,** 완방이란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다. 객병(客病)을 다스리려면 급방을 쓰는데, 급방이란 표증(標證)을 치료하는 약이다.(p.3284)

⑦ **주증(主證)을 치료할 때는 완방을 쓰니,** 완방은 본(本)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객증(客證)을 치료할 때는 급방을 쓰니, 급방은 표(標)를 치료하기 때문이다.(p.1971)

완방으로 주병을 치료하는데, 완방으로(치료) 하면 병의 근본을 치료한다. 급방으로 객병을 치료하는데, 급방으로(치료) 하면 병의 표증을 치료한다.

1) ‘以緩’의 ‘以’는 方式介詞이므로 ‘…으로’¹⁶⁾번역

16)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241.

학자에 따라 介詞·前置詞·前置介詞란 용어를 사용하고

한다. ‘以’는 방식이나 도구를 나타내어 중심사(中心詞)에 소개한다. ‘治主以緩’의 ‘治’는 서술어, ‘主’는 목적어, ‘以緩’은 부사어이다, 이 문구는 ‘완방으로 주병을 치료하다.’로 해석한다.

2) ‘則’은 연결접속사로 시간·조건·목적·상대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위의 경우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면…하다’¹⁷⁾는 뜻이다.

위의 번역문의 대다수가 서술부(서술어·목적어)와 부사어를 주부(주어)로 번역한 것이다. 즉 종속성분(以緩:완방으로)을 무리하게 서술어+목적어구조(완방을 쓰는데)로 번역하였다. 또 형태소 ‘則(…하면…하다.)’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하였다.

2. 指示代名詞 ‘之’·‘其’의 翻譯

1) 之의 해석

之’는 삼인칭지시대명사(삼인칭대체사)¹⁸⁾로 사용된다. 대부분 목적어로 사용되며 ‘그것’으로 번역한다. 대부분의 번역서가 이 ‘之’를 잘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은 모든 번역서에서 ‘之’를 번역하였다.

【制藥方法】凡純寒純熱藥中，須用甘草以緩其力。寒熱相雜者，亦用之以和其性.

① 무릇, 純寒, 純熱한 藥은 반드시 甘草를 써서 그 힘을 늦추고 寒熱이 相半된것도 또한 甘草를 써서 그 性味를 和하게 하여야 한다.(p.178)

② 대개 純寒·純熱한 藥은 반드시 甘草를 써서 그 힘을 늦추고 寒熱이 相半된 것도 또한 甘草를 써서 그 性味를 和하게 하여야 한다.(p.1086)

③ 대개 순한(純寒)하고 순열(純熱)한 약은 반드시 감초(甘草)를 써서 그 힘을 늦추고 寒熱(한열)이 서로 반반이 되는 경우도 또한 甘草(감초)를 써서 그

있다.

17)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257.

18) 金元中 編著.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568. 한문법 학자에 따라 삼인칭지시대명사, 삼인칭대체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性味(성미)를 온화하게 해야 한다.(p.1309)

④ 무릇 순한(純寒), 순열(純熱)의 약 중에는 반드시 감초를 써서 그 힘을 완화(緩)시키고 한열(寒熱)이 서로 섞인 것 또한 **감초를** 써서 그 성질을 완화시킨다.(P.41)

⑤ 성질이 순전히 찬 약(純寒藥)과 성질이 순전히 더운 약(純熱藥)에는 감초를 넣어 써서 그 약 기운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질이 찬 약과 더운 약을 섞어 쓰는 데도 역시 **감초를** 넣어 써서 그 약의 성질을 고르게 해야 한다.(p.2715)

⑥ 무릇 성질이 모두 찬 약과 성질이 모두 뜨거운 약으로 구성된 처방에는 감초를 넣어 그 약 기운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질이 찬 약과 뜨거운 약을 섞어 쓰는 데도 역시 **감초를** 넣어 써서 그 약의 성질을 고르게 해야 한다.(p.3281)

⑦ 차기만 하거나 뜨겁기만 한 약에는 반드시 감초를 넣어 약 기운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열이 뒤섞인 경우에도 **감초를** 써서 약성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P.1969)

위의 번역문은 모두 ‘之’를 **지시대명사로** 보았고 더 나아가 ‘之’를 **실질명사로 대체**하여 번역한 경우이다. 이 문장과는 달리 기존의 번역서에는 번역하지 않은 문장이 더 많다.

【湯散丸法】○大抵湯者蕩也 去久病用之 散者散也 去急病用之 丸者緩也 不能速去之 取徐緩而治之之意也

① 대체로 **탕**이란것은 蕩 字와 意味가 通하는 것이니 久病에 써서 蕩滌하려는것이요 散이란것은 散 卽 흠어버리는것이니 急病에 쓰는 것이요 丸이란것은 緩 字와 뜻이 같으니 速하지 않고 淸淸히다스린다는 뜻이다.(p.179)

② 대체로 **탕**이란 것은 蕩字와 意味가 通하는 것이니 久病에 써서 蕩滌하려는 것이요 散이란 것은 散 卽 흠어버리는 것이니 急病에 쓰는 것이며 丸이란 것은 緩字와 뜻이 같으니 速하지 않고 淸淸히 다스린다는 뜻이다.(p.1087)

③ 대부분 **탕(湯)**이란 것은 **탕(蕩)**자와 뜻이 통하는 것이니 오래된 병을 씻어 없애는 데 쓸것이고 **산(散)**이란 것은 즉 흠어버리는 것이니 급한 병에 쓰는 것이며 **환(丸)**이란 것은 **완(緩)**자와 뜻이 같으니 빠르지 않고 淸淸히 치료한다는 뜻이다.(p.1310)

④ 대개 **탕(湯)**은 **탕(蕩)**이니 오래 된 병을 제거하는데 쓴다. **산(散)**이란 흠음[散]이니 급한 병을 제거하는데 쓴다. **환(丸)**이란 느림[緩]이니 빨리 제거하지 못하는데 취하여 淸淸히 다스린다는 뜻이다.(p.43)

⑤ 대체로 **탕(湯)**이란 것은 확 씻어 낸다[蕩]는 뜻인데, 오랜 병을 치료하는 데 쓴다. **산(散)**이란 해쳐 버린다는 뜻인데, 급한 병[急病]을 치료하는 데 쓴다. **환(丸)**이라는 것은 완만하다[緩]는 뜻인데, 빨리 치료하지 않고 淸淸히 치료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p.2717)

⑥ 대체로 **탕(湯)**이라는 것은 **탕척(蕩滌)**, 곧 물로 씻어버리듯이 병 기운을 씻어낸다는 뜻인데, 오래된 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쓴다. **산(散)**이란 흠어낸다는 뜻인데, 급한 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쓴다. **환(丸)**이라는 것은 완만하다는 뜻인데, 급하게 가지 않고 서서히 완만하게 치료한다는 뜻이다.(P.3283)

⑦ 대개 **탕(湯)**은 씻어버린다는 뜻으로, 오래된 병을 없애는 데 쓴다. **산(散)**은 흠는 다는 뜻으로, 급한 병을 없애는 데 쓴다. **환**은 완만하다는 뜻으로, 병을 빨리 없애지는 못하나 서서히 치료한다는 뜻이다.(p.1970)

대개 **탕(湯)**이란 것은 씻어 버리는 것(蕩)이다. 오래된 병을 제거하는 데 **그것(湯)**을 사용한다. **산(散)**이란 것은 흠어버리는 것(散)이다. 급한 병을 제거하는 데 **그것(散)**을 사용한다. **환(丸)**이란 것은 완만한 것(緩)이다, 빠르게 **그것(病)**을 제거 할 수 없어서 淸淸히 받아들이게 하여 **그것(病)**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모든 번역서가 목적어 ‘之’를 번역하지 않았다. 목적어 ‘之’는 湯·散·病 등을 대신하여 쓴 것이다. 끝 문장 “取徐緩而治之之意也(淸淸히 받아들이게 하여

그것(病)을 치료한다는 뜻이다.)”는 저자가 ‘之’를 목적어로 분명히 사용한 일단의 예(例)이다. ‘之’에서 앞의 ‘之’는 지시대명사로서 목적어로 쓰인 것이고, 뒤의 ‘之’는 관형격조사(……한, ……하는)로 쓰인 것이다.

“不能速去之”의 경우는 ‘不能(…할 수 없다.)’은 조동사, ‘速’은 부사어, ‘去’는 본동사로 서술어, ‘之’는 목적어 구조로 한문에서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조동사+ 부사어+ 본동사+ 목적어)

2) 其의 해석

문장에 배합된 ‘其’는 크게 주어와 관형어로 쓰인다.¹⁹⁾ 대부분의 번역서는 지시대명사 ‘其’를 잘 번역하지 않았는데, 아래의 번역문은 ‘其’를 번역한 경우이다. 그런데 한 문장 내에서도 ‘其’를 번역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七方】 治主以緩, 緩則治其本, 治客以急, 急則治其表.

① 主를 다스리는것은 緩方을 取하나니 緩方은 그 根本을 다스리는것이요 客을 다스리는 것은 急方을 取하나니 急方은 그 外標를 다스리는 것이다.(p.179)

② 主를 다스리는 것은 緩方을 取하는데 緩方은 그 根本을 다스리고, 客을 다스리는 것은 急方을 取하는데 急方은 그 外標를 다스리는 것이다.(p.1088)

③ 주(主)를 치료하는 것은 느린 처방을 택하는데 느린 처방은 그 근본을 치료하고 객(客)을 치료하는 것은 급방(急方)을 택하는데 급한 처방은 그 겉을 치료하는 것이다.(p.1310)

④ 치료함에 완화하는 것[緩]으로 위주(主)로 하니 완방(緩方)은 그 근본[本]을 치료하고 객(客)은 급(急)함으로써 치료하니 급방(急方)은 그 끝[標]을 치료한다.(P.44)

⑤ 주병을 치료하는 데는 완방을 쓰는데, 완방이란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다. 밖으로부터 침범한 병

을 치료할 때에는 급방을 쓰는데, 급방이란 표증(表證)을 치료하는 약이다.(p.2718)

⑥ 주병(主病)을 다스리려면 완방을 쓰는데, 완방이란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약이다. 객병(客病)을 다스리려면 급방을 쓰는데, 급방이란 표증(標證)을 치료하는 약이다.(p.3284)

⑦ 주증(主證)을 치료할 때는 완방을 쓰니, 완방은 본(本)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객증(客證)을 치료할 때는 급방을 쓰니, 급방은 표(表)를 치료하기 때문이다.(P.1971)

⑤⑥은 앞의 ‘其’는 번역하였는데, 지시대명사를 보통명사로 바꾸어 구체적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그러나 뒤의 ‘其’는 번역하지 않았고, ①②③④는 지시대명사로 번역하였다. ⑦은 모두 ‘其’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 처럼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보인다.

이 문장은 “완방으로 주병을 치료하는데, 완방으로 하면 그(病)의 근본을 치료한다, 급방으로 객병을 치료하는데, 급방으로 하면 그(病)의 표증을 치료한다.”로 번역하면 통사구조(統辭構造)에 맞는 번역이 된다.

가. 主語로 쓰이는 경우

【採藥法】 今卽事驗之 春寧宜早 秋寧宜晚 花實莖葉乃各隨其成熟爾

① 봄에는 일찌기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늦게 캐는 것이 좋으며, 花, 實, 莖, 葉은 各各 그의 成熟하는 때를 따라서 採取하는 것이 좋다.(p.175)

② 봄에는 일찌기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늦게 캐는 것이 좋으며, 花實莖葉은 各各 그의 成熟하는 때를 따라서 採取하는 것이 좋다.(p.1084)

③ 봄에는 일찍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늦게 캐는 것이 좋으며, 꽃열매뿌리잎은 각각 그의 자라는 때를 따라서 채취하는 것이 좋다.(p.1306)

④ 이제 목전의 일을 경험하건데 봄에는 차라리 일찍이 채취하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차라리 늦게 채취

19) 이 두 가지 이외에 ‘아마’·‘또한’·‘장차’·‘나의’·‘너의’ 등으로도 쓰인다.

하는 것이 좋다. 꽃(花)·열매(實)·줄기(莖)·잎(葉)은 곧 각기의 성숙(成熟)에 따라서 채취하는 것이 좋다.(p.35)

⑤ 실제로 체험한 바에 의하면 봄에는 될수록 일찍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될수록 늦게 캐는 것이 좋다. 꽃·열매·줄기·잎은 각각 **그것이** 성숙해지는 시기에 따는 것이 좋다.(p.2709)

⑥ 지금까지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봄에는 차라리 일찍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차라리 늦게 캐는 것이 좋으며, 꽃·열매·줄기·잎은 각각 **그것이** 성숙되는 시기에 따는 것이 좋다.(p.3275)

⑦ 그러므로 봄에는 일찍 캐는 것이 좋고, 가을에는 늦게 캐는 것이 좋다. 꽃·열매·줄기·잎은 각기 성숙한 때에 맞추어 채취한다.(p.1965)

이제까지 그것(採藥)을 경험 바에 의하면, 봄에는 차라리 일찍 약을 캐는 것이 알맞고, 가을에는 차라리 늦게 약을 캐는 것이 알맞다. 꽃, 열매, 줄기, 잎은 단지 각각 **그것들이** 성숙되는 것을 따를 **뿐이다**.

본문의 ‘其’는 복수로 쓰인 것으로 그것들(꽃, 열매, 줄기, 잎)을 말한다. 단수로 번역한 것(그것이⑤⑥), 번역하지 않은 것(④⑦), ‘其’를 소유격(관형어)으로 ‘그의’²⁰⁾로 번역한 것(①②③) 등이 있다. 이 문장의 ‘其’는 주어로 ‘그것들이’로 번역해야 한다.

어떤 번역서에는 ‘今卽事驗之’를 번역하지 않았다(②③⑦), ‘今’은 ‘이제’이고, ‘卽事²¹⁾’는 ‘내가 가서 채약을 직접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爾’는 원래 이인칭대명사이나 문장 끝에 놓이면 한정 표시語氣詞로 ‘…할 따름이다.’, ‘…할 뿐이다’²²⁾는 뜻을 지니고 있다.

나. 冠形語로 쓰이는 경우

【湯散丸法】用稠麪糊者 取**其**遲化 直至下焦也 或酒或醋 取**其**收**其**散之意也

① 稠麪糊에 和丸하는 것은 더디게 消化되어서 下部에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요 或은 酒, 或은 醋를 쓰는것은 **그의** 收斂과 發散의 뜻을 意味하는 것이다.(pp.178-179)

② 稠麪糊에 和丸하는 것은 더디게 消化되어서 下部에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요 或은 酒, 或은 醋를 쓰는 것은 **그의** 收斂과 發散의 뜻을 意味하는 것이다.(p.1087)

③ 진한 술풀에 환으로 하는 것은 더디게 소화되니 아래 부위까지 내려가라는 것이며 또는 술 또는 초로하는 것은 그의 거두어주는 것과 흩어 버리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p.1309)

④ 작은 밀가루 풀로 환(丸)을 만드는 것은 더디게 소화되어 바로 하초(下焦)로 가게 하려는 것이고, 혹은 술, 혹은 식초(醋)를 취하는 것은 수렴[收]하고 발산[散]함을 취하는 뜻이다.(pp.42-43)

⑤ 걸쭉한 밀가루풀[稠麪糊]에 반죽하는 것은 **환약**이 더디게 풀리게 하여 바로 하초로 가게 하려는 것이고, 술이나 식초에 쏘아 풀에 반죽하는 것은 줄어 들게 하거나 잘 퍼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P.2717)

⑥ 걸쭉한 밀가루풀에 반죽하는 것은 **환약**이 더디게 풀리게 하여 바로 하초(下焦)로 가게 하려는 것이고, 술이 나 식초를 넣고 반죽하는 것은 수렴하거나 잘 퍼져 나가게 하려는 뜻이다.(p.3283)

⑦ 걸쭉한 밀가루 풀을 쓰는 것은 천천히 풀어지게 하여 하초로 곧바로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술이나 식초를 쓰는 것은 모이고 흩어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p.1970)

백백한 밀가루 풀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더딘 변화(천천히 풀리는 것)를 취해서 하초에 바로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더러 술을 **사용하거나** 더러 초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수렴작용과 **그의** 발산작용을 취하려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其’가 3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 ‘其’는 ‘用稠麪糊者’한 藥을, 두 번째 ‘其’는 醋를, 세 번째 ‘其’는 酒를 의미한다. ‘取其遲化’의 ‘其’를 ‘환약이’로 번역한 것은 문장의 성분 배열이 서술어(取)+ 관형어

20) 金元中 編著.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251.
2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卷二).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 p.325. “往就其事也.”
22)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15.

(其)+목적어(遲化) 구조인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이다. 즉 ‘取’가 서술어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그의)로 번역해야한다. 한문은 강조문이 아니면 주어+서술어 뒤에 오지 않는다.

원문의 ‘或酒或醋’는 원래 ‘或用酒 或用醋(부사어+서술어+목적어)’의 구조인데 서술어 ‘用’이 생략된 것이다. 한문의 기본구조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보어)이고 확장구조에서 수식성분인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배합되고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배합된다. 위의 문장은 ‘부사어(或)+목적어(酒·醋)’의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사어와 목적어 사이에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

한문에서 서술어의 생략은 1) 앞글을 받아서 생략되는 경우, 2) 뒷글에 보여 생략되는 경우, 3) 말뜻이 자명한 경우, 4) 시가(詩歌)의 음운 제약 등에서 나타난다.²³⁾ 본문의 경우는 1)의 경우에 해당된다.

다. ‘그 중에’로 번역해야하는 경우

【三品藥性】中藥一百二十種爲臣 主養性以應人 無毒有毒 斟酌其宜

① 中品の 藥이 亦是 一百二十種으로서 臣이 되니 性을 기르고 사람에게 應하며 無毒과 有毒이 섞였으니 잘 參酌해서 써야하는데(P.175)

② 中品の 藥이 亦是 一二〇種으로서 臣이 되니 性을 기르고 사람에게 應하면 無毒과 有毒이 섞였으니 잘 參酌하여 써야 하는데(P.1084)

③ 중품(中品)의 약이 또한 120가지로써 신(臣)이 되니 양성(養性)하며 사람에게 응(應)하면 독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써야 하는데(p.1306)

④ 중품(中品) 120종은 신약약[臣]이 된다. 양성(養性)을 주관해서 사람에게 응한다.(應人) 무독(無毒) 유독(有毒)은 그 마땅함을 잘 해야러서[斟酌] 쓰고(P.36)

⑤ 중품[中藥]도 120가지인데, 신약(臣藥)으로 쓴

다. 이것은 주로 양생(養生)하는 데 쓰며, 인기(人氣)와 서로 응한다. 독이 없는 것도 있고 독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맞는 것을 골라 써야 한다.(P.2710)

⑥ 중품[中藥] 120가지는 신약(臣藥)으로 쓰는데, 이것은 주로 성품을 기르기에 인기(人氣)와 서로 응한다. 독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짐작하여 적당히 사용하되,(p.3276)

⑦ 중약(中藥) 120종은 신약(臣藥)이 되어 양성(養性)을 주로 하고 사람에게 응한다. 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 살펴서 알맞게 써야 한다.(p.1966)

중약 120 가지는 신약(臣藥)이 된다. 주로 (인간의) 천성(天性)을 길러서 사람에게 응한다. 독이 없기도 하고 독이 있기도 하니 그 중에 알맞은 것을 짐작(斟酌)하라.

‘其’는 드물게 사람이나 사물의 전체를 대칭하고 ‘그 중에’²⁴⁾로 번역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3. 文章 成分의 翻譯

1) 主語가 目的語로 번역된 경우

【修製法】蒼朮半夏陳皮 用湯泡洗 去其燥性

① 蒼朮, 半夏, 陳皮를 湯水에 包洗하면 燥性을 除去하고(p.176)

② 蒼朮·半夏·陳皮를 湯水에 包洗하면 燥性을 除去하한다.(p.1085)

③ 蒼朮(창출)·半夏(반하)·陳皮(진피)를 끓인물에 찌서 씻으면 마른 성분을 없앤다.(p.1307)

④ 창출(蒼朮)·반하(半夏)·진피(陳皮)는 끓인 거품[湯泡]으로 씻어야 그 조금한 성질을 제거한다.(p.38)

⑤ 창출·반하·진피는 더운물에 우려 씻어서 써야 조(燥)한 성질이 없어진다.(p.2712)

⑥ 창출(蒼朮)·반하(半夏)·진피(陳皮)는 물에 끓여 거품을 내고 씻어 써야 조열(燥烈)한 성미를 제거 할

23)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78.

24) 金元中 編著.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251.

수 있다.(p.3278)

⑦ 창출·반하·진피는 끓인 물에 불려 씻어야 조(燥)한 성질이 없어진다.(p.1967)

창출·백출·진피는 끓는 물을 사용하여 거품이 씻겨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창출·백출·진피) 조열한 성미를 제거한다.

위의 번역서 ①·②·③은 주어를 목적어로 번역하였다. 위 문장의 주어는 ‘蒼朮半夏陳皮’이다. ‘其’역시 복수로 사용된 지시대명사이며 관형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그들의’로 번역해야 한다.

2) 修飾語를 主語로 번역하고, 主語를 目的語로 번역한 경우

【湯散丸法】 去下部之疾 其丸極大而光且圓……

① 下部의 病을 다스리는 것은 丸이 極히 크고 光澤하고 圓滿하며……(p.178)

② 下部의 病을 다스리는 것은 丸이 極히 크고 光澤하고 圓滿하며,……(p.1087)

③ 아래 부분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한약이 아주 크고 광택이 나고 원만하며……(p.1309)

④ 하초(下焦)의 질병을 제거할 때는 그 환(丸)을 지극히 크고 빛나고 둥글게 만든다.(p.42)

⑤ 하초의 병을 치료할 때에는 환약을 크고 번들번들하고 둥글게 만들어 쓰며,……(p.2717)

⑥ 하부(下部)의 병을 치료할 때는 환약을 최대한 크고 겉은 윤기가 나도록 매끄럽게 하며 또한 둥글게 만들어 쓰고,……(p.3283)

⑦ 하부의 병을 없애려면 환을 매우 크고 빛나며 둥글게 만들어야 하고,……(P.1970)

하부의 병을 제거(치료)할 때에 그(약)의 환(丸)은 최대한 크게 하교 빛이 나도록 하며 또 둥글게 만들어 ……

위의 문장을 번역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가.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去下部之疾’은 전치사(於)²⁵⁾가 생략된 문장의 종속성분으로 수식어이다, 주요성분의 주부(주어)는 ‘其丸’이고, ‘極大而光且圓’은 부사+ 서술어+ 접속사+ 서술어+ 접속사+ 서술어가 배합된 서술부이다. 수식성분인 ‘去下部之疾’을 많은 번역서가 주어로 보았다.

나. 관형어와 주어의 관계

지시대명사 ‘其’는 주어나 관형어로만 사용되므로 이 문장의 ‘其丸’은 관형어+주어(그(약)의 환)로 번역해야 하는데, ④⑤⑥⑦은 ‘其丸’을 모두 목적어로 보았다. 삼인칭지시대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之’ 뿐이다.

다. 접속사 ‘而’의 용법

‘極大而光且圓’에서 ‘大而光’의 정확한 번역은 ‘크게 하고 빛이 나도록 하며’로 번역해야 한다. 접속사 ‘而’는 서술어와 서술어의 연결에만 쓰인다.²⁶⁾앞에 배합된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라도 動詞化해서 번역한다.²⁷⁾

3) 主語가 省略된 文章에서 敘述語를 主語로 번역한 경우

【芎藭】 惟貴形塊重實 作雀腦狀者 謂之雀腦芎

① 形의 塊가 重實하여 雀腦와 같은 것을 貴히 너기므로 “雀腦芎”이라 하나니(p.267)

② 形의 塊가 重實하여 雀腦와 같은 것을 貴하게 여기므로 雀腦芎이라 하는데(p.1184)

③ 형태의 塊가 重實(重實)해서 작뇌(雀腦)와 같은 것을 貴하게 여기니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는데(p.1409)

④ 오직 귀한 형태는 덩어리[塊]가 실(實)하고 작뇌(雀腦) 모양을 짓는 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고(p.295)

25)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84.

26) 반대로 명사와 명사의 연결에는 ‘與’가 사용된다. 【服藥食忌】 枸杞與乳酪相惡(구기와 유락은 상오이다.)

27) ‘人與人’은 ‘사람과 사람’으로 번역되고, ‘人而人’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는’으로 번역한다.

⑤ 오직 **귀한 것은** 덩이져 무거우며 속이 탄탄하고 참새골[雀腦]처럼 생겼다. 이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며(p.2971)

⑥ 오직 **귀한 것은** 덩이져 무거우면서 속이 탄탄하고 참새골[雀腦]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는바,(p.3507)

⑦ **뿌리가** 덩이지고 무거우면서 단단하며 참새 골처럼 생긴 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고 하여(p.2156)

형태가 덩어리 모양으로 무거우면서 충실하여 참새의 뇌의 형상으로 된 **것을 오직 귀중하게 여긴다.** 그것 때문에 작뇌궁(雀腦芎)이라 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제목으로 나온 芎藭이나 생략되었다. 惟(오직)는 부사어, 貴(귀하게 여기다)는 서술어, 形塊重實作雀腦狀者는 목적어이다, 形塊重實作雀腦狀은 불완전명사 者(…… 것)를 수식하는 수식어이다. 대부분의 번역문이 주어가 생략된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여 서술어를 주어로 번역하였다.

한문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대화체 문장·앞글에서 주어가 나온 경우·뒤 글에 나오는 경우·일인칭이 주어가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⁸⁾

『東醫寶鑑』에서는 약초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약초를 설명함으로 인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역자들이 종종 주어가 생략된 것을 간과(看過)하는 경우가 있다.

위 문장의 번역은 문장의 성분·불완전명사 者의 용법·‘謂之’의 특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번역 문 앞에 主語인 ‘궁궁이’를 넣어보면 ⑦을 제외하고는 모두 잘못된 문장이 된다.²⁹⁾

① (궁궁이는) 形의 塊가 重實하여 雀腦와 같은 **것을** 貴히 너기므로 “雀腦芎”이라 하니

② (궁궁이는) 形의 塊가 重實하여 雀腦와 같은 **것을** 貴하게 여기므로 雀腦芎이라 하는데

③ (궁궁이는) 형태의 塊가 重實(重實)해서 작뇌(雀腦)

28)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70.

29) ①②③은 “形의 塊가”는 의미적으로 맞지 않다. ‘형태의 덩어리가’ 아니고 ‘덩어리의 형태가’ 맞다.

腦)와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니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는데

④ (궁궁이는) 오직 귀한 **형체는** 덩어리[塊]가 실(實)하고 작뇌(雀腦) 모양을 갖는 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고

⑤ (궁궁이는) 오직 **귀한 것은** 덩이져 무거우며 속이 탄탄하고 참새골[雀腦]처럼 생겼다. 이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며)

⑥ (궁궁이는) 오직 **귀한 것은** 덩이져 무거우면서 속이 탄탄하고 참새골[雀腦]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 하는바,

⑦ (궁궁이는) **뿌리가** 덩이지고 무거우면서 단단하며 참새 골처럼 생긴 것을 작뇌궁(雀腦芎)이라고 하여

추측컨대 ⑦의 경우 원문에는 ‘뿌리’라는 단어가 없다, 그런데 주어인 ‘친궁’은 뿌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주어를 현실적으로 살려서 ‘뿌리’로 번역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번역도 문장의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사어와 서술어인 ‘惟貴(오직 귀중하게 여긴다.)’와 ‘謂之’를 번역하지 않았다.

4) 使役動詞를 번역하지 않은 문장

【服藥食忌】 服地黃何首烏 人食蘿菔則**能**耗諸血 令人髮變早白

① 地黃과 何首烏를 먹으면서 蘿菔을 먹으면 모든 血을 消耗하여서 髮髮이 早白하여지고 (p.187)

② 地黃과 何首烏를 먹으면서 蘿菔을 먹으면 모든 血을 消耗하여서 髮髮이 早白하여지고,(p.1095)

③ 지황(地黃)과 何首烏(何首烏)를 먹을 때는 나복(蘿菔)을 먹으면 모든 피를 써서 없어져 윗 머리가 빨리 희어지고(p.1318)

④ 지황(地黃)과 何首烏(何首烏)를 복용하면서 사람이 무우(蘿菔)를 먹으면 모든 血(血)을 소모시켜 사람의 鬚수염[鬚]과 머리칼[髮]을 **희게 한다.**(p.60)

⑤ 지황-하수오를 먹을 때에 무를 먹으면 血이 줄어들고 수염과 머리카락이 일찍 희어진다.(p.2736)

⑥ 지황이나 하수오를 복용하는 사람이 무를 먹으면 혈이 줄어들고, 수염과 머리털이 일찍 희어진다.(p.3300)

⑦ 지황이나 하수오가 있는 약을 복용할 때 무를 먹으면 혈을 소모시켜 수염과 머리털이 빨리 희어질 수 있다.(p.1983)

지황과 하수오를 복용하고 사람이 무를 먹으면 **모든** 피를 소모시킬 수가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수염과 머리털을 일찍 희게 한다.

‘숨’은 명사로는 ‘우두머리’이나, 사역동사³⁰로 쓰이면 ‘……하여금 ……하게 하다.’로 번역된다. 그리고 ‘能’은 ‘……할 수 있다’로 번역하고, ‘諸’는 ‘모두’라는 뜻이다.

4. 修飾 成分의 翻譯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문장의 수식 성분을 번역하지 않았다. 문장의 주성분이 아니므로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번역에서는 이러한 수식 성분도 저자의 뜻을 살려 분명하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服藥法】 蓋人五更初腎氣開 纔一言語咳唾 腎氣即合 當腎開時 靜默進藥 功效殊勝

① 腎을 補하는藥은 반드시 밤중의 말하기前에 먹는 것이 좋으니 대개 사람이 밤중 卽 子正쯤 되면 腎氣가 열렸다가, 겨우 言語하고 咳唾하면 腎氣가 습해 버리나니 腎氣의 열릴 때에 고요하게 藥을 먹으면 功效가 特殊한 것이다 (p.181)

② 腎을 補하는 藥은 반드시 밤중의 말하기 前에 먹는 것이 좋으니 대개 사람이 밤중 卽 子正쯤 되면 腎氣가 열렸다가, 言語하고 咳唾하면 腎氣가 습해 버리는 이것이 腎氣가 열릴 때에 고요하게 藥을 먹으면

功效가 特殊한 것이다.(p.1090)

③ **대부분** 사람은 오경 초(五更初)가 되면 신기(腎氣)가 열렸다가 말을 하고 침을 삼키면 신기(腎氣)가 함하여 버리는 것이므로 신기(腎氣)가 열릴 때에 조용히 약을 먹으면 그 효력이 특출할 것이다.(P.1312)

④ **대체로** 사람은 5경 초에 신기(腎氣)가 열리니 말을 하거나 기침하거나 침을 뱉으면 신기가 곧 닫히니 마땅히 신기(腎氣)가 열릴 때 조용히 약을 먹으면 공효(功效)가 뛰어나다.(P.48)

⑤ **대체로** 신기(腎氣)는 새벽 4시경에 처음 발동하였다가 말을 하거나 기침하거나 침을 뱉으면 곧 막힌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기가 동할 때에 조용히 먹어야만 약효가 좋은 것이다.(P.2722)

⑥ **대체로** 오경 초에 신기(腎氣)가 열렸다가 일단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 신기가 곧 닫히게 되므로 반드시 신기가 열려 있을 때 조용히 약을 복용해야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P.3289)

⑦ 오경 초에는 사람의 신기(腎氣)가 열린다. 말 한마디를 하거나 기침이나 침만 뱉어도 신기(腎氣)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신(腎)이 열려 있을 때 고요하게 약을 먹어야 효과 **특히** 좋다.(P.1974)

대체로 사람들은 오경(새벽 3-5時 사이)초에 신기(腎氣)가 열리므로 **잠시 한번이라도**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 신기는 **곧** 닫힌다. **마땅히** 신기가 열릴 때 조용하고 말없이 약을 먹어야 공을 들인 효과가 **매우(특히)** 좋을 것이다.

이 문장에 쓰인 허사(虛詞)는 蓋(대개, 대체로), 纔(잠(暫)의 뜻으로 잠시), 一(한번), 卽(곧), 當(마땅히…하여야 한다), 殊(매우, 아주, 특히) 등이다. 허사를 모두 번역한 번역서가 없다.

이 원문을 쓴 사람의 의도는 의사(醫師)가 환자에게 약 먹이는 때를 설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란 단어는 ‘자신 이외의 사람’이거나 ‘사람에 대한 범칭(凡稱)’이다. 자신을 말할 경우 ‘人’에 대칭어로 ‘己(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進藥’은 ‘약을 드린다.’는 경어(敬語)이다.³¹ ‘약을 먹는다.’로 번역하려면 ‘服

30)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5.

藥'일 경우이다. 아니면 최소한 '약을 먹이면'이나 '약을 먹어야만' 정도로는 意譯하는 것이 좋겠다.

1) 상(相) : ① 서로 ② 자세히 보다

가. 서로

【人參】中心生一莖與桔梗相似

① 中心에 한 대궁이가나고 桔梗과 비슷한데 (p.261)

② 中心에 한 대궁이 나고 桔梗과 비슷한데 (p.1178)

③ 중심에 한봉우리가 나오고 길경(桔梗)과 비슷한데 (P.1402)

④ 한 줄기는 도라지(桔梗)와 **서로** 비슷하다. (P.280)

⑤ 인삼 가운데는 하나의 줄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마치** 길경과 비슷하다. (P.2956)

⑥ 인삼 가운데는 하나의 줄기가 위로 올라갔는데, **마치** 길경(桔梗, 도라지)과 비슷하다. (P.3493)

⑦ 한가운데서 줄기 하나가 뻗어 올라오는 것이 길경과 비슷하다. (P.2145)

중심에 한 개의 줄기가 나오는데 도라지와 **서로** 비슷하다,

나. 자세히 보다

【人參】讚曰 三椹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櫟樹相尋

① <讚> “셋줄기에 다섯 葉이 陽을 향하고 陰을 등지니 이것을 求하려면 櫟樹의 根을 찾으라”(P.261)

② 세 줄기에 다섯 葉이 陽을 향하고 陰을 등지니 이것을 求하려면 櫟樹의 根을 찾으라. (P.1178)

③ 세 줄기에 다섯 잎이 양(陽)을 바라보고 음(陰)을 등지고 있으니 이것을 구하려면 가나무 根을 찾으라. (p.1402)

④ 찬(讚)에 이르기를 “세 아귀 다섯 잎 양을 등지

고 음을 향하네(三椹五葉背陽向陰)와서 나를 찾으려면 가나무를 서로 찾아야 하리(欲來求我櫟樹相尋)” 했다. (p.280)

⑤ 찬(讚)에는 “세 가지 다섯 잎에 그늘에서 자란다네, 나 있는 곳 알려거든 박달나무 밑 보라네”라고 하였다. (P.2956)

⑥ 「찬(贊)」에 이르길, “세 가지 다섯 잎에 햇빛을 등지고 그늘에서 자란다네, 나를 찾아 있는 곳 알려거든 유자나무 밑을 살펴야 한다네”라고 했다. (P.3493)

⑦ 『인삼찬』에서는, “3개의 가지에 잎이 다섯이고, 해를 등진 채 음지에서 자란다. 나를 찾아보고자 하면 개오동나무 根의 **자세히** 찾아보라.”고 하였다. (p.2145)

찬에는 “세 개의 가지와 다섯 장의 잎에 햇빛을 등지고 그늘진 곳을 향한다. 나를 찾아오려고 한다면 櫟樹(개오동나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하였다.

먼저 원문에 ‘根’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없다, 相은 ‘자세히 보다.’이고, ‘尋’은 ‘찾다.’이다. 즉 ‘자세히 찾아보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2) 時 : 때번, 때마다, 때때로

【製藥方法】凡此七情合和 時視之 當用相須相使者 勿用相惡相反者

① 무릇 이러한 七情이 서로 和合할 때에 마땅히 그들의 和合과 惡反을 잘 살펴서 (P.178)

② 대개 이러한 七情이 서로 和合할 때에 마땅히 그들의 和合과 惡反을 잘 살펴서, (P.1086)

③ 대개 이러한 칠정(七情)이 서로 융합될 때에 당연히 그들의 합하는 것과 악반(惡反)을 잘 살펴서, (pp.1308-1309)

④ 무릇 이 7정(七情)이 합하고 조화함(和合)을 잘 살펴서 마땅히 서로 돕고 서로 부리는 것은 쓰고 미워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쓰지 말아야한다. (p.41)

⑤ 이 칠정(七情)의 관계를 잘 살펴 보아야한다. 상수상사약은 같이 쓸 수 있으나 상오상반약은 함부로

31) 이러한 조어법으로 만들어 진 비슷한 단어로는 ‘進酒’가 있다. 進酒, 謂給酒他人也. (中文大辭典 九 p.一二五) “進酒는 타인에게 술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같이 쓸 수 없다.(P.2715)

⑥ 이와 같은 칠정(七情)은 처방을 구성할 때 **잘** 살펴서 상수(相須)·상사(相使)하는 것을 함께 쓰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오(相惡)·상반(相反)하는 것을 함께 써서는 안 된다.(p.3281)

⑦ 약을 합할 때 상수나 상사가 되는 약을 써야지 상오나 상반되는 약을 쓰면 안 된다.(p.1969)

대체로 이 칠정의 화합(和合)은 **매번(때마다)** 그것을 살펴야한다. 상수(相須)와 상사(相使)되는 것은 당연히 쓸 수 있으나, 상오(相惡)와 상반(相反)되는 것은 쓰지 말라.

이 문장에서 ‘凡此七情合和’는 주어, ‘時’는 부사어, ‘視’는 서술어, ‘之’는 목적어이고, ‘之’는 곧 ‘合和’이다. 많은 번역서가 ‘凡此七情合和 時視之’를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았거나, ‘時(매번)’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3) 善 : 잘, 교묘히

【熟地黄】性溫 味甘微苦 無毒 大補血衰 善黑鬚髮……

① 性溫, 味甘, 微苦, 無毒하니 血의 表한것을 大補하고, 鬚髮을 검게하고(p.262)

② 性溫·味甘微苦·無毒하다. 血의 表한 것을 大補하고, 鬚髮을 검게 하며(p.1179)

③ 성분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약간 쓰며 독이 없고 피가 허한 것을 크게 보해주고 수발(鬚髮)을 검게 하며(p.1403)

④ 성질이 따뜻하고[溫] 맛이 달고[甘] 조금 쓰고[微苦] 독이 없다. 혈(血)이 쇠약한 것을 크게 보(補)하고, 수염과 머리칼을 검게 한다.(p.282)

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달며 약간 쓰고 독이 없다. 부족한 혈을 크게 보하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p.2959)

⑥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약간 쓰고, 독이 없다. 부족한 혈을 크게 보하고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하며,(p.3495)

⑦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약간 쓰며 독이 없다. 혈이 쇠약한 것을 크게 보하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p.2147)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달면서 약간 쓰며 독이 없다. 혈(血)이 쇠약해진 것을 크게 보충하며 수염과 머리카락을 **잘** 검게 하며……,

모든 번역서가 ‘善’을 번역하지 않았다.

4) 獨 : 오직, 유독. 見 : 피동형

【十二劑】○藥有十劑 今詳之 惟寒熱二種 何獨見遺 如寒可去熱 卽大黃朴硝之屬 是也

① 藥의 10種에 寒熱의 二種이 어째서 遺漏되었는가? 그것을 補充한다면 寒은 熱을 다스리는것이니 大黃, 朴硝의 類가 그것ियो(p.180)

② 藥의 10種에 寒熱의 二種이 어째서 遺見되었는가? 그것을 補充한다면 寒은 熱을 다스리는 것이니 大黃·朴硝의 類가 그것ियो(p.1088)

③ 약의 10가지에 한열(寒熱)의 2가지가 어째서 유견(遺見)되었는가? 그것을 보충해 말하면 한(寒)은 열(熱)을 치료하는 것이니 대황(大黃)과 박초(朴硝)의 종류가 그것이고(p.1311)

④ 약에 있는 10제(劑)를 지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오직 한열(寒熱) 2종은 어째서 보기에서 빠졌는가? 가령 한(寒)은 열(熱)을 제거시킬 수 있으니 곧 대황(大黃) 박초(朴硝)의 무리가 이것이다.(p.45)

⑤ 약에 10제가 있다는 것은 요즘 자세하게 알려졌으나 오직 한제(寒劑)와 열제(熱劑) 이 2가지는 빠졌다. 한제는 열증을 낮게 하는 약인데 대황·박초 같은 것이며,(p.2719)

⑥ 약에 10제가 있다는 것은 요즘 자세하게 알려졌으나 오직 한제(寒劑)와 열제(熱劑) 이 두 가지는 어째서 빠져 있는가? 한제(寒劑)는 열증을 낮게 하는 약으로서, 대황·박초 같은 것이다.(p.3285)

⑦ 약에 10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한제(寒劑)와 열제(熱劑)를 어찌 빠트릴 수 있겠는가? 한제는 뜨거운 것[熱]을 차게 하니 대황·박

초가 이에 해당한다.(p.1972)

약은 10제가 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지만 오직 한제(寒劑)와 열제(熱劑) 두 가지는 어찌하여 **유독** 빠지게 **되있는가?** 한제(寒劑)와 같은 것은 열을 제거할 수 있으니 곧 대황(大黃)과 박초(朴硝)의 무리가 이것이다.

‘獨’이 부사로 쓰이면 ‘오직’ 혹은 ‘유독’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見’은 피동형(被動形)으로 ‘…… 당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피동형은 서술어(遺)를 강조하거나 들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문에서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피(被)·견(見)·위(爲)·소(所)³²⁾가 있으며, 이 조동사는 동사 앞에 배합된다. ‘何獨見遺’의 직역은 ‘어찌하여 유독 버림을 받았는가?’이다.

5) 須 : 모름지기, 반드시, 마땅히

【修製法】黃栢知母下部藥也 久弱之人 須合用之 酒暴乾 恐寒傷胃氣也

① 黃板 知母는 오래 虛弱한 사람의 藥이니 酒浸, 暴乾하는것은 차와서 胃氣를 傷하는 때문이요.(P.176)

② 黃白知母는 오래 衰弱한 사람의 藥이니 酒浸 暴乾하는 것은 차가워서 胃氣를 傷하기 때문이요.(P.1084)

③ 황백(黃白)·지모(知母)는 아래 부분 약이고, 오랫동안 쇠약한 사람은 **반드시** 술에 적셔서 매우 말려서 쓰니 그것은 차가워서 위기(胃氣)가 상(傷)하기 때문이다.(P.1307)

④ 황백(黃白), 지모(知母)는 하초약[下部藥]이니 오랫동안 약한 사람은 합해서 써야 하니 술에 담가 포건(暴乾)하는 것은 위기(胃氣)가 한상(寒傷)할까 두려워서이다.(p.37)

⑤ 황백과 지모는 하초(下焦)의 병에 쓰는 약인데 허약해진 지 오랜 사람에게 쓸 때에는 술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려[酒浸暴乾] 써야 한다. 왜냐하면 약의 성

질이 차므로 위기(胃氣)를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p.2712)

⑥ 황백(黃白)과 지모(知母)는 하초(下焦)의 병에 쓰는 약으로서, 오랜 기간 허약했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황백과 지모를 합쳐서 사용하되 술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려서 써야 하는데, 그것은 약의 성질이 차므로 위기(胃氣)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P.3277)

⑦ 황백과 지모는 하부의 약이다. 오랫동안 허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하여 쓴다. 술에 담갔다가 볶에 말리는 것은 찬 기운이 위기(胃氣)를 상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P.1967)

황백과 지모는 하부의 약이다. 오랫동안 허약했던 사람에게는 그것(黃白知母)을 **반드시** 합하여 사용하되 술에 담갔다가 햇볕에 말려야 한다. (왜냐하면) 차가워서 위기(胃氣)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이다.

①②의 경우는 ‘須合用之’를 해석하지 않아 저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번역된 경우이다.

5. 文章의 段落을 잘못 나는 경우

1) 【菖蒲】菖蒲有脊 一如劍刃

① 菖蒲는 劍刃과 같은 葉脊이 一直하게 서있다.(p.261)

② 菖蒲는 劍刃과 같이 葉脊이 一致하게 서있다.(p.1178)

③ 창포(菖蒲)는 칼날과 같이 엽적이 서로 같이 서 있다.(p.1402)

④ 창포(菖蒲)에는 척(脊)에 칼날 같은 것이 한결같이 있다.(p.279)

⑤ 석창포는 등심 줄이 있는데 꼭 칼날처럼 되어 있다.(p.2955)

⑥ 석창포에는 등심줄이 있는데 꼭 칼날 같다.(p.3492)

⑦ 창포는 잎 한가운데 튀어나온 잎맥이 있고 칼날

32)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61.

처럼 생겼다.(p.2144)

창포는 葉脊이 있는데, (창포의 모양은) 한결같이 칼날 같다.

이 문장은 두개의 문장으로 분석된다. ‘菖蒲有脊’에 서는 ‘菖蒲’가 주어(主語)이고 ‘有’가 서술어, ‘脊’이 補語다.(창포는 엽적이 있다.) 다음 문장의 주어는 ‘菖蒲之形’이나 생략된 것이다.³³⁾ 즉 이 문장은 ‘菖蒲之形一如劒刀’이다.(창포의 모양은 한결같이 칼날 같다.) ‘一’은 부사어, ‘如’는 서술어, ‘劒刀’은 목적어이다.³⁴⁾

①②③④는 원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본 것이다. ①의 번역문은 ‘菖蒲一直立如劒刀之脊’의 구조로 된 문장이며, ②의 번역문은 ‘菖蒲一致立如劒刀之脊’의 구조로 된 문장이고, ③의 번역문은 ‘菖蒲如劒刀以脊相同立’의 구조로 된 문장이고, ④의 번역문은 ‘菖蒲一有如劒刀於脊’의 구조로 된 문장이다. ⑦은 ‘菖蒲有突葉脈於葉中 如劒刀’의 문장을 번역한 것이다.

2) 【制藥方法】藥有君臣佐使以相宣攝合和宜用一君二臣三佐五使

기존 번역서의 단락 나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藥有君臣佐使, 以相宣攝. **合和**宜用一君二臣三佐五使로 단락을 나눈 경우

⑥ 처방에는 군(君)·신(臣)·좌(佐)·사(使)가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화롭게 배합하여 쓰려면**, 군약 1, 신약 2, 좌약 3, 사약 5로 쓰는 것이 좋다.(p.3280)

⑦ 약에는 군·신·좌·사가 있어서 서로 협조한다. **조화롭게 배합되려면** 군약 1개, 신약 2개, 좌약 3개, 사

약 5개를 써야 한다.(p.1969)

나. 번역문으로 보아 藥有君臣佐使以相宣攝**合和**. 宜用一君二臣三佐五使로 단락을 나눈 경우

① 藥에 君, 臣, 佐, 使가 있어서 서로 宣揚하고 包攝하고 **妙合하고 和解하니** 마땅히 一君, 二臣, 三佐, 五使로 쓸것ियो(p.177)

② 藥에 君·臣·佐·使가 있어서 서로 宣揚하고 包攝하고 **妙合하고 和解하는데** 마땅히 一君·二臣·三佐·五使로 쓸 것ियो(p.1086)

④ 약(藥)에는 임금(君), 신하(臣), 좌사(佐使)가 있어서 서로 배풀고 포섭하고[宣攝] 한데 합하여 잘 어울리니[合和] 마땅히 1군(一郡) 2신(二臣) 3좌(三佐) 5사(五使)를 쓰고(p.40)

다. 한문 원문에는 2)의 단락으로 나누었으나 해석은 1)의 단락으로 한 경우

⑤ 처방에는 군약[君]·신약[臣]·좌약[佐]·사약[使]이 있기 때문에 서로 퍼져 나가게도 하고 거두어들이게도 한다. 그러므로 **처방을 구성할 때는** 군약 1, 신약 2, 좌약 3, 사약 5로 하는 것이 좋다.(p.2714)

라. 원문이 없어 번역서로 구별하기가 어려운 문장

③ 약에 일군(一君)·이신(二臣)·삼좌(三佐)·오사(五使)가 있어서 서로 선불(宣拂)하고, 감싸주고 같이 뺏고 서로 풀어주는데 당연히 오사(五使)를 쓸 것이며,(p.1308)

약은 군(君)·신(臣)·좌(佐)·사(使)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선섭(宣攝: 협력하여 약을 좋게 하기도하고, 서로 억제하기도 함)한다. **합화(複方이 잘 어울리게 하는 것)는** 마땅히 군약 1·신약 2·좌약 3·사약 5를 써야한다.

‘藥’은 주어, ‘有君臣佐使以’는 원인개사 ‘以(때문에)’에 의한 수식 성분이고, ‘相(서로)’은 부사어, ‘宣攝’은 서술어이다. ‘合和’는 주어, ‘宜’는(마땅히...하여야 한

33)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요진우 편저. 이중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1. p.371.

34) ‘劒刀’의 문장 성분이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부사어인가에 대해서는 한문법 연구가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통사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를 제외하기로 한다.

다.’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어이고, ‘用’은 서술어, ‘一君二臣三佐五使’는 목적어이다. 요컨대 ‘合和’는 뒷문장의 주어로 앞 문장에 붙여서 해석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된다.

6. 語彙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1) 【製藥方法】凡此七情合和 時視之 當用相須相使者 勿用相惡相反者 若有毒宜制 可用相畏相殺者 不爾勿合用也.

① 무릇 이러한 七情이 서로 和合할때에 마땅히 그들의 和合과 惡反을 잘 살펴서 만약 毒이있으면 制御한 뒤에 쓰고 서로 두려워하고 죽이는 것은 습해서 쓰지 말아야하는 것이다.(P.178)

② 대개 이러한 七情이 서로 和合할 때에 마땅히 그들의 和合과 惡反을 잘 살펴서, 만약 毒이 있으면 制御한 뒤에 쓰고 서로 두려워하고 죽이는 것은 습해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P.1086)

③ 대개 이러한 칠정(七情)이 서로 융합될 때에 당연히 그들의 합하는 것과 악반(惡反)을 잘 살펴서, 만일 독이 있으면 규제한 뒤에 쓰고 서로서로 두려워하고 죽이는 것은 합해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pp.1308-1309)

④ 무릇 이 7정(七情)이 합하고 조화합(合和)을 잘 살펴서 마땅히 서로 돕고 서로 부리는 것은 쓰고 미워하고 서로 반대되는 것을 쓰지 말아야한다. 만약 독(毒)이 있으면 억제해서 써야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죽이는 것은 합해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p.41)

⑤ 이 칠정(七情)의 관계를 잘 살펴 보아야한다. 상수상사약은 같이 쓸 수 있으나 상오상반약은 함부로 같이 쓸 수 없다. 만일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억눌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의약과 상사약을 같이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배합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P.2715)

⑥ 이와 같은 칠정(七情)은 처방을 구성할 때 잘 살펴서 상수(相須)상사(相使)하는 것을 함께 쓰는 것은 마땅하지만 상오(相惡)상반(相反)하는 것을 함께 써서는 안 된다. 만약 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의(相畏)상살(相殺)하는 것을 서로 배합하여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함부로 배합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p.3281)

⑦ 약을 합할 때 상수나 상사가 되는 약을 써야지 상오나 상반되는 약을 쓰면 안 된다. 조절해야 할 독이 있을 때는 상외나 상살이 되는 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쓰면 안 된다.(p.1969)

대체로 이 칠정의 화합(和合)은 매번(때마다) 그것을 살펴야한다. 상수(相須)와 상사(相使)되는 것은 당연히 쓸 수 있으나, 상오(相惡)와 상반(相反)되는 것은 쓰지 말라. 만약 독이 있어서 마땅히 조치(상호작용으로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를 취해야 한다면 상의(相畏)와 상살(相殺)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하여 쓰지 말라.

합화(合和)는 화합(和合)과 같은 뜻이고,³⁵⁾ 不爾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다.³⁶⁾①·②·③·④는 번역이 잘못되어 저자의 의도를 왜곡한 내용이 되었다. 이 경우는 ‘不爾’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2) 【煮藥法】古方用藥一劑而用水少者 今當只以藥五錢 水一盞半爲率 作一服也

① 藥五錢重에 물一盞半을 標準하는것이 適宜하다.(P.181)

② 藥五錢重에 물 一盞半을 標準하는 것이 適當하다.(P.1089)

③ 약(藥) 5돈 무게에 물 1돈반을 기준으로 하는

3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卷二).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 p.567. “合和 和合也, 合亦和也.”

3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卷一).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 p.369. “不爾猶不然也,”

것이 적합하다(P.1312)

④ 옛의방[古方]은 약 한 제를 쓰는 데 쓰는 물이 적은 것이라 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약 5전에 물 한잔 반을 **표준**으로 해서 한 번에 복용하는 것이다.(P.47)

⑤ 옛날 처방에 약 1 제(劑)에는 물을 적게 둔다고 하였다. 이것은 요즘 양으로 보면 약재 20g에 물 1잔 반의 **비율로** 두어 한 번에 먹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p.2721)

⑥ 고방(古方)에서“약 1 제(劑)에 물을 적게 붓는다”고 한 것은 지금의 양으로 보면 약재 5돈에 물 1잔 반의 **비율로** 부어서 한 번에 복용할 양으로 삼는 것이다.(P.3287)

⑦ 고방(古方)에서는 약 1제를 달일 때 물을 적게 쓴다고 하였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약 5돈에 물 1.5잔의 **비율로** 1회 복용량을 정한다.(P.1974)

(약을 달일 때)옛 처방에 약은 한 劑 단위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물은 적었다. **이제는 마땅히 단지** 약 五錢(5돈)에 물 한잔 반이 **率(6兩)**이 되도록 하여(달여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문장의 번역에서 看過하면 안 되는 것이 ‘今當 只’이다.(**수는 ‘이제’는, ‘지금’은, ‘當은 ‘마땅히 ...해야 한다.’** 只는 ‘단지’, ‘다만’) 이 허사(虛辭)들은 저자가 과거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약을 달이도록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이다. 그리고 ‘爲率’을 대부분의 번역서가 ‘비율(比率)로 한다.’ ‘標準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문을 쓴 사람은 과거와 달리 이제 약의 양은 五錢(5돈:18.75g)으로 하고 물의 양은 한 잔 반으로 하여 6兩(225g)이 되도록 달여서 그것을 한 번에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약의 양, 물의 양, 달인후의 양, 복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率’이 달인 후의 양을 설명하기위해 사용된 양사(量詞)로도 생각된다. 率은 6兩이다.³⁷⁾ ①·②는 “古方用藥一劑而用水少者 今當

只”를 해석하지 않았다.

III. 結論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번역서는 대부분 의역(意譯)을 하여 漢文의 文法的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한 번역이 미흡하다.

1. 前置詞에 代名詞나 接續詞가 배합된 문장은 簡箇 形態素들의 번역이 미흡하다.

2. 翻譯書 대부분은 指示代名詞 ‘之’와 ‘其’의 統辭의 特性이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3. 文章의 成分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4. 문장의 修飾成分인 副詞語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5. 문장의 段落을 잘못 나눈 경우가 발견된다.

6. 語彙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

參考文獻

<논문>

1. 孟雄在. 동의보감 한문(寒門) 번역본의 잘못된 점에 대한 고찰(1). 한국전통의학지. 2000. 10(1). p.71.

<단행본>

1. 許珉譯. 詳譯 東醫寶鑑. 大邱. 東洋綜合通信大學敎育部. 1964. pp.175-188. 260-271, 299-320.
2.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編.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pp.1084-1096, 1177-1213.
3. 具本泓監修. 한글 完譯本 東醫寶鑑. 서울. 大衆書館. 1977. pp.1306-1320, 1401-1440.
4. 최창록윝김. 완역 東醫寶鑑. 서울. 푸른사상. 2003. pp.35-65, 278-368.
5. 趙憲泳, 金東日外十八人共譯. 三次 改訂版 原文對譯 東醫寶鑑. 서울. 여강. 2005. pp.2709-2740,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위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1錢은 3.75g 1兩은 37.5g) 率은 錢(옛 냥)과 같다. ‘率’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7) g의 단위는 정확하지 않다. 중국에서도 시대적으로 용어는 동일하지만 무게의 양이 달랐다. 기록된 g의 양은 지금

- 2954-3045.
6. 東醫文獻研究室編譯. 新編對譯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史.2005. pp.3275-3303, 3491-3571.
 7. 윤석희, 김형준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서울. 동의 보감출판사. 2005. pp.1965-1986, 2143-2211.
 8. 金元中編著. 虛詞辭典. 서울. 玄岩社. 1989. p.251, 377, 378, 568.
 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 p.369, 2143, 2385, 8409, 14415.
 10. 요진우 편저. 이종한 옮김. 한문 문법의 분석적 이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1. p.35, 241, 257, 315, 361, 370, 384.
 11. 東亞百年玉篇. 서울. 두산동아. 2006. p.971.